

곡성군 블루베리 연중 출하로 경쟁력 확보

하우스 재배 6.2ha로 늘려
3월부터 생과 조기 출하
노지재배보다 소득 2배

“연중출하 차별화 전략으로 앞서 나가겠습니다.”

곡성군은 6~7월 집중 출하 시기 블루베리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 출하 시스템을 갖춰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2007년부터 급증해 2015년 2305ha까지 확대됐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외국산 블루베리 수입량도 늘어 1kg당 3만원을 웃돌던 가격은 최근 1만원대로 폭락했다.

이로 인해 전체 재배면적의 24%에 달하는 550ha의 농가가 블루베리 가격하락에



곡성에서 시설재배(비닐하우스)로 블루베리를 생산한 농민이 지난 4월 수확한 블루베리를 들어 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어려움을 겪어 FTA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블루베리 가격하락에 대응한 차별화 전략으로 연중출하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블루베리는 6월 중순부터 7월 하순까지 집중적으로 출하돼 이 시기 가격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설재배 비중이 높은 이점을 살려 기존 시설을 보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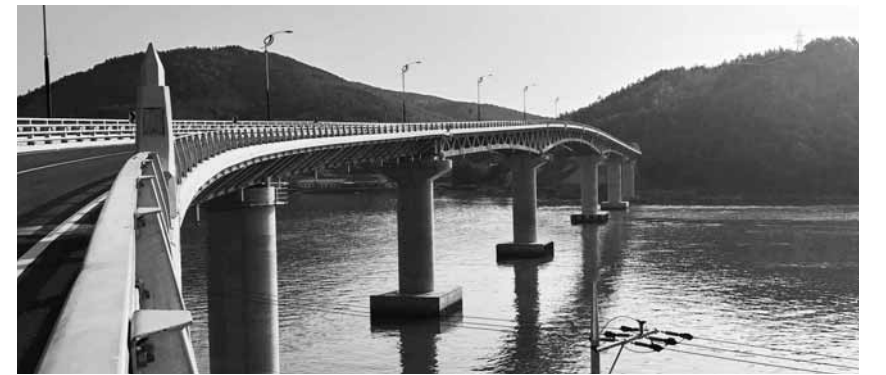
군은 조기재배 확대를 위해 난방기와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해 지난 2016년 1.3ha이던 조기재배 면적을 올해 6.2ha까지 확대한 결과 3월부터 생과를 분산출하하는데 성공했다.

박광순 곡성블루베리연구회 회장은 “블루베리 조기출하 시 노지재배보다 2배 이상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며 “시설하우스재배는 강우로 인한 당도저하나 열과 피해가 없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블루베리 시설재배농장에 ICT기술을 접목하고 고품질 블루베리를 생산하기 위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도 벌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블루베리 생과를 오랫동안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블루베리를 관광소재로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 봉래면 사양도~동일면 연도교 개통

“우리가 이제 차타고 다닙니다.”
고흥군 봉래면 사양도와 동일면 외교마을을 연결하는 연도교(사진) 공사가 마무리됐다.

14일 고흥군(군수 박병중)은 봉래면 사양도와 동일면 외교마을을 연결하는 연도교 공사가 완료돼 지난 11일 오전 개통식후 12시부터 개방됐다고 밝혔다.

사양~외교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2013년 9월 착공해 391억 원을 투입했다. 주교량 220m와 접속교 2개소 200m 등 총 길이 420m, 도로폭 10.5m 왕복 2차로로 시공됐다.

사양도 주민들은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하루 5차례 운행하는 도선을 이용해 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사양교 완

공후 차량을 통해 오갈 수 있게 됐다. 개통식에 앞서 고흥군은 올해 설립절 기간에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에 임시 개통을 한 바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양교 개통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수려한 경관을 보기 위한 방문객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흥군은 연계도로 확충과 마감 공사, 주민편의 시설물 설치 등 추가 사업을 2019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후속사업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된 사양~선창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2020년까지 마무리해 사양도 내 교통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고흥 녹동~제주 카페리어객선 취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지난 12일 고흥군 녹동~제주 항로에 대형 카페리어객선 ‘아리온제주호(6266t·사진)’가 첫 취항했다고 밝혔다.

아리온제주호는 그동안 운항한 ‘남해고속카펠리호(3780t)’를 대체해 투입되는 것으로 여객정원은 825명으로 기존 선박과 비슷하다. 화물수송 능력은 2배 늘어난 차량 300대(승용차 기준)까지 적재 가능하다.

기존 남해고속7호의 노후화에 따른 대체로 연식이 짧고 승객에게 더욱 쾌적한 공간을 선사할 수 있는 대형 카페리어객선인 아리온제주호로 교체됐다. 최고 속도 24노트로 녹동 제주간 3시간



간20분이 소요되며 기존의 남해고속7호에 비해 20분 단축됐다.

주 중 매일 오전 9시에 녹동에서 출항하며 제주에서는 오후 4시30분에 출항하며 주말에는 토요일 같은 시간에 녹동을 출항해 일요일에 회항한다.

/고흥=주각중기자 gjiu@

보성군 참다래 농가 인공수분 기술지원

보성군이 참다래 개화기를 맞아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수분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참다래는 바람에 의한 자연수분은 거의 되지 않아 인공수분을 해주어야 한다. 군은 안정적인 과일 생산을 위한 인공수분을 위해 참다래 재배 160여 농가가 지난

해 재추회 보관하고 있는 꽃가루에 대해 발화율 검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달까지 중점지도기간으로 설정해 발아율 활력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방으로 우량 꽃가루를 인공수분용으로 사용하도록 현장지도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곡성 세계장미축제 뮤지컬 ‘갯 조르바’ 26일 무대 오른다

초대형 뮤지컬 ‘갯 조르바’가 제8회 곡성 세계장미축제가 열리는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무대에 오른다.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2시와 6시, 2차례에 걸쳐 섬진강기차마을 장미무대에서 뮤지컬 갯 조르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갯 조르바는 고양이 왕자 실종 사건 속에 숨겨진 고양이 왕국의 거대한 비밀이야기로, 고양이 왕국 ‘이페르’와 인간 세상이 공존하는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토리를 다룬 국내 창작 뮤지컬이다.

벨기에 이페르 고양이 축제설화를 모티브로 이뤄진 스토리 속의 매력적인 고양이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배우 최영민씨가 조르바 역을, 배우 최미소씨가 미미 역을, 배우 최미용씨가 프레이 역을 맡아 생동감있는 연기를 펼친다. 그 밖에 배우 임재현, 박민희, 윤정섭, 이창희씨가 함께 출연해 숲 자파즐로 사건을 추리하는 가족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구례 기부 챌린지 ‘옥스팜 트레일워커’ 300여명 참가 성황

세계적인 기부 프로젝트인 ‘옥스팜 트레일워커’의 10km 패밀리 프로그램이 1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의 코스는 구례군의 주요 관광지로 알려진 ‘지리산호수공원’과 지리산호수공원을 상징하는 경관다리를 거

쳐 지리산권역의 100여 종의 야생화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지리산공원의 ‘야생화 테마랜드’를 돌아 출발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로 돌아오는 코스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0km 코스로 진행됐다. 지난 1981년 홍공에서 시작된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4명이 한 팀을 이

뤄 38시간 동안 100km를 완주하는 도전형 기부 챌린지로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구례에서 두 번째 열렸다. 옥스팜 트레일워커 참가비와 더불어 사전 기부펀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은 100%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금으로 쓰인다. /구례=이진택기자 jlt@

보성군 170억 들인 해수녹차센터 내달 준공

보성군은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해수녹차센터를 새로 짓고 다음 달 말 준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성군에 따르면 총 170억원을 투입해 2016년 12월 착공해 지상 3층, 연면적 4422㎡로 현재 운영중인 해수녹차탕의 2배 이상 규모로 준공될 예정이다. 1층은 뷰티테라피와 특산품판매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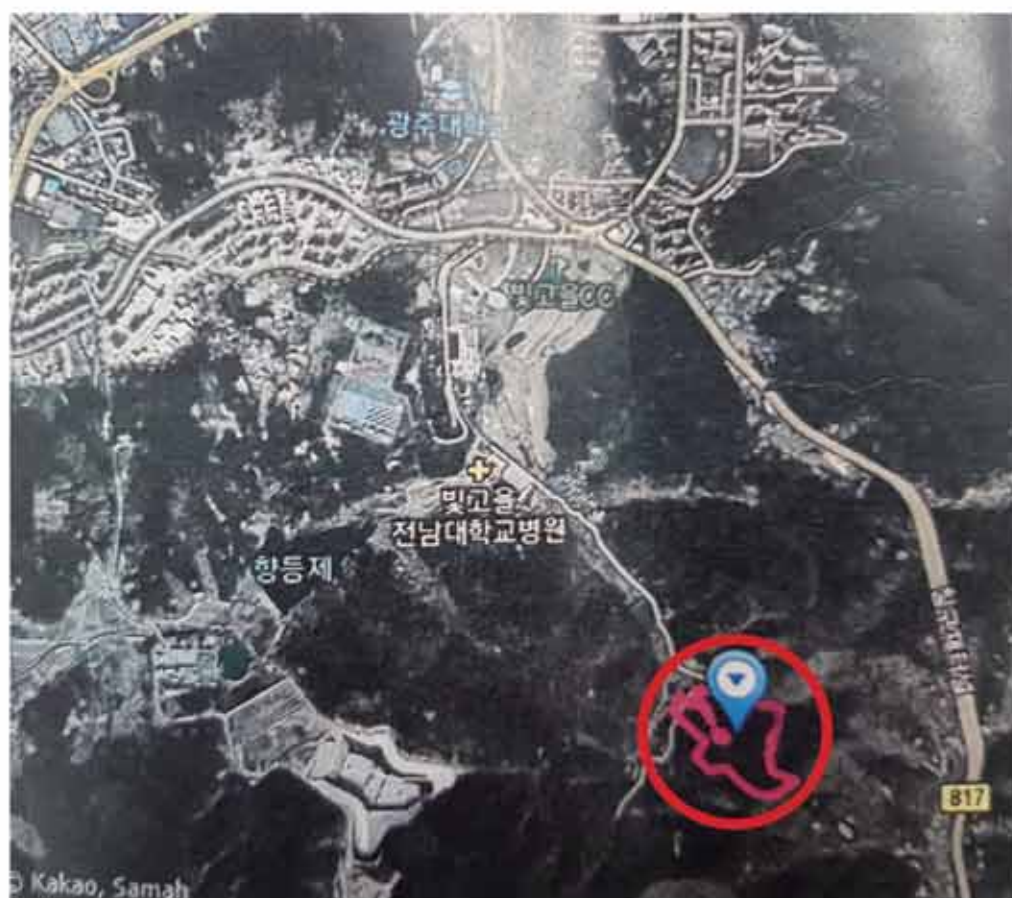
자리하고 2층은 동시에 55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남·녀 해수녹차탕, 3층은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아쿠아토닉과 야외 노천탕이 조성된다.

1층에 조성될 뷰티테라피와 특산품판매장 위탁운영을 위한 임업자는 이달 중순에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물 내·외부 마감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 대비 8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보성군은 6월말 준공전에 시설물 예비가동을 실시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 개장한다는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해수녹차센터는 단순 목욕문화에서 탈피해 건강과 치유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공간 구성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및 율포종합휴양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장/단기 최고 투자물건※

임야 "급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135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3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맹지)
 - 매매 - 평당 15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8-1230